

프랑스 외투기업, 무주에 등지

도-풀무원다논-무주군
농공단지 239억 투자
신규 생산라인 증설 협약
동부권 지역경제 '활력'



지난 22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송성환 도의회의장, 황인홍 무주군수, 정희련 풀무원다논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풀무원다논(주) 증설투자 협약 체결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요거트 전문기업인 프랑스 외투기업 풀무원다논은 무주 농공단지 239억 원을 투자해 신규 생산라인을 증설함으로써 4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전북도는 지난 22일 도청에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송성환 전북도의회의장, 황인홍 무주군수, 정희련 풀무원다논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풀무원다논 증설투자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풀무원다논의 무주 공장 라인 증설 지원과 투자 및 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동반 성장할 것을 약속했다.

풀무원다논은 풀무원의 바른 먹거리 철학과 100년 발효 역사를 지닌 프랑스 다논의 세계 1위 요거트 기술이 더해져 설립된 요거트 회사이다.

프랑스 다논이 보유한 4,000여종의 유산균 중 엄선된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반으로, 현재 세계 판매 1위 요거트 브랜드 '액티비아'를 생산하고 있다.

풀무원다논은 2008년 무주 농공단지 에 등지를 틀고 현재 100여명의 종업원을 둔 중견기업으로서 이번 생산 공장 증설에 약 200억원을 투자해 올해

말까지 1개의 생산라인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공장 증설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요거트 시장이 매년 지속 성장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이를 통해 무주 지역 신규 고용창출과 도내 관련농가의 소득 향상은 물론 무주군을 비롯한 동부권 발전 등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협약식에서 "풀무원다논과 증설투자 MOU체결은 농생명산업의 메카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전북도와 무주군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북도와 무주군은 풀무원다논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련 풀무원다논 대표이사는 "풀무원다논의 기존 제품들 물량 확대는 물론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신제품 출시를 위한 신규 생산 설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증설협약을 통해 풀무원다논과 전북도와 무주군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남북 연락사무소, 6개월 만에 기로... 북측 "상부 지시 따라 철수"

통일부 "철수 결정 유감... 조속 복구 정상 운영되길"

남북이 365일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 자리잡고 있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쯤째 기로에 놓였다. 지난해 9월 개소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지난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서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통보하고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서 설치키로 합의했고, 지난해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9월14일 개성공단 내에 문을 열었다.

연락사무소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소통 창구로 기능해 왔다. 통일부를 중심으로 남북협력 사업 유관부처 직원 20여명이 평일에 상주하며 실무급에서 회의를 하고, 남북 소장도 매주 금요일 모여 소장회의를 하는 등 연락

체계를 형성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이후 100일 간 남북은 285회 회담과 협의를 했다. 하루 평균 2.9회 남북 접촉이 이뤄졌고 통지문도 173건이 교환됐다. 통일부는 "특정 인원과 직급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수준에서 협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철도·도로 공동조사, 산림·보전·의료·체육협력, 이산가족 상봉, 개성만월대 발굴, 10·4 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 등 다양한 남북 협력사업이 이뤄졌다. /김진성 기자

그러나 이날 개소 190일째를 맞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결정함으로써 쯤째의 기로에 놓였다.

북측은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며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언급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이 조속히 복귀하여 남북 간 합의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남측 사무소는 계속 근무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협소한 전주실내체육관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이전

신축 사업, 전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 조건부 통과
월드컵경기장 인근 복합 스포츠 타운 조성도 '탄력'

건축된 지 45년이 지나 낡고 협소한 전주실내체육관이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 국제경기장을 치를 수 있는 글로벌 규모로 신축된다.



이로써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은 전주실내체육관 신축과 함께 향후 종합경기장·야구장 대체시설이 들어설 경우 다목적·다기능을 갖춘 복합 스포츠 타운(World Sports City)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시는 전주실내체육관 신축사업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전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KCC이시스 농구단 완전 정착 △농구팀 지역 기여 향상 △기존 실내체육관 활용 활성화 등의 조건부로 통과해 사업 추진이 가능케 됐다고 22일 밝혔다.

규모는 총사업비 522억을 투자해 복합 스포츠 타운으로 조성중인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 현 전주실내체육관을 대체할 수 있는 부지면적 2만3,400㎡, 연면적 1만5,940㎡, 관람석 5,000석이다.

이 사업을 통해 프로농구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배구와 핸드볼, 배드민턴, 체조 등 각종 스포츠 국내·국제경기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현 전주실내체육관은 경기장과 관람석, 주차공간 등 공간

이 협소하고 특히, 준공 후 45년이 경과돼 시설물 일부 벽체와 기둥 등의 노후화로 안전등급 C등급을 받는 등 시설물 증축 및 개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주실내체육관을 휴거장으로 사용하는 프로농구 KCC이시스의 경우 이를 문제 삼아 연구지 이전 문제도 불거졌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민선4기부터 실내체육관에 대한 리모델링과 증축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으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 월드컵경기장 인근으로 이전 신축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이번 투자심사를 받게 됐다.

김승수 시장은 "드디어 45년 만에 국제 실내 스포츠 산업의 메카가 될 전주실내체육관이 첫 발을 떼면서 농구팬들의 오랜 열망이 실현되기 시작했다"며, "농구 시즌에는 최고의 농구장으로, 비시즌 중에는 각종 국내외 경기 유치로 시민들에게 보고 즐길거리를 선사하고 아울러 스포츠 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도 신임 행정부지사에 최용범 행안부 조직정책관

전북도 신임 행정부지사에 최용범(56)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 임명됐다. 최 신임 부지사는 남원 출생으로 전주교대



와 전북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책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장 등을 거쳤다. 한편 지난 2017년 9월에 취임한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지난 11일 명퇴를 신청했으며, 22일 퇴임식을 가졌다. /김진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